

일 주 문



올해의 명예 차인상
준광 천대종 총무원장 스님은 12월 14일 한국차인연합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15회 올해의 차인상 시상식'에서 명예차인상을 수상했다.



제3회 화랑청소년 인성 스키캠프
송목 대한불교스카우트불교연맹장 스님은 1월 18~20일 '제3회 화랑청소년 인성 스키캠프'를 진행한다. 참가 모집은 12월 28일까지다.



길상원만 대법회
지덕 금강승 수행센터 캄파시링 센터장 스님은 12월 29일 동국대 국제센터에서 몽골 국사 네충 스님을 초청해 '2016년 길상원만 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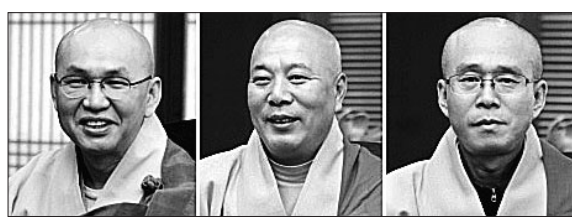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관리인 법성 스님



조계종 직영사찰 직영사찰 선본사 신임 관리인에 법성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4일 직영사찰 선본사 관리인 법성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새로 임명된 법성 스님은 지역사회에서 선본사에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성 스님은 도업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사미계)했으며, 보라매법당 주지, 호국정각사 주지, 호국영축사 주지, 충국성불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 국장·일반직 인사 단행

총무국장 남전·홍보국장 호신·사회국장 지상 스님



남전 스님 호신 스님 지상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국장급과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단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 총무국장에 남전 스님과 홍보국장 호신 스님, 사회국장에 지상 스님을 임명했다. 사회국장 지상 스님에게도 "사회부의 각 단체와 기관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무자들과 함께 종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계종은 17일 제7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탐장 및 행정관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월 1일부터다.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무차장 및 기획차장 직무대리는 윤승환 전 총무팀장, 김용구 전 기획팀장이 각각 맡게 됐으며, 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포교원 탐장은 이신화 전 기획팀 행정관이, 홍보팀장은 윤효원 전 포교팀장이, 포교차장은 황철기 전 신도팀장이, 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장은 윤영희 전 포교차장이 각각 맡았다. 신성민 기자

“소아암 환자·소년소녀가장 도움 짓”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12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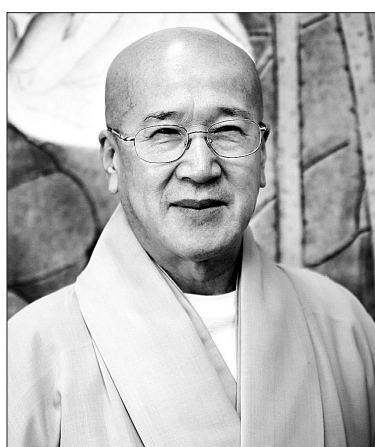
혜정 스님

“이 시대가 원하는 승가상은 나눔과 회향에 앞장서는 수행자일 것입니다. 불교대학원 출신 스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눔실천을 통한 포교, 전법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통체인 '총동림동문회' 제12대 회장으로 용인 보구정사 주지 혜정 스님이 취임했다.

혜정 스님은 12월 15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진행한 스리랑카 봉사활동을 비롯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종단의 스님들이 불교대학원 동문 이름으로 뭉친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국내외에서 종단을 넘어 자비실천에 나서고 있다. 2015년 한해 동안 스리랑카 사문드라기리 사원 기숙사 건립 및 물품 후원, 탑골공원 무료급식 자원봉사 및 지원, 26대 대 호국 총용사 위문법회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나눔실천 활동을 진행해왔다.



동국대 일산병원 지원계획 밝혀

해외복지사업 확장도 다짐

“동문 힘모아 나눔 실천 앞장”

동안 나눔실천 활동을 진행해왔다.

혜정 스님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다. 임기내 특히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장학금 지원과 동국대 일산병원에 소아암 환자를 위한 병

원비 마련에 나서고 싶다”며 “불자들은 나중에 나눔실천에 나서겠다는 마음보다, 지금 당장 작은 노력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스리랑카 사원 후원에 회원 스님들이 힘을 모았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는 해외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1978년 태고종으로 출가한 혜정 스님은 용인 보구정사 주지 있으며 용인지역사암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용인서부서 경승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끝으로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밝은 미래를 향한 과정일 것”이라며 “한국불교와 동국대, 그리고 불교대학원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임한 제11대 회장 무문 스님은 “그동안 동문회 발전에 힘을 모아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며 “제12대 동문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동문상’에 권기중 교수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18일 송년의밤서 수상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김용표)는 '2015년 불교학과 명예로운 동문상' 수상자로 권기중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를 선정했다.

권기중 명예교수는 1960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 이후 초대 군법사와 교법사를 시작으로 동국역경위원, 동국대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평생을 헌신했다.

권기중 교수는 특히 개교90주년을 맞아 열린 세계불교학술회의 집행위원장, 동국역경원 편찬차장, 불교성전편찬위 간사 등 근현대 불교사 발전의 밑거름이 된 불사들의 실무를 도맡아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천대종원각불교사상연구원 원장, 불이상심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또 <고려시대 선사상연구>, <불교사상사연구 상·하>, <권기중 교수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불교>, <대승육도참회>, <선수행의 길> 외 저서 30여 권, 논문 50여 편 등을 남겼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는 “불교학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결속과 화합에 이바지한 업적이 모든 동문의 귀감이 돼 추천된 만장일치로 시상을 결정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8일 엠버서더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불교학과 동문 송년의밤에 진행됐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과는 2016년 학과 창립 110년을 맞으며 110년사 발간과 기념축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불교기자협회 제19대 회장에 김현태 기자

15일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선출... 수석부회장에 본지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 제19대 회장으로 김현태 법보신문 차장(사진)이 선출됐다. 불기협(회장 이강식)은 12월 15일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에 김현태 법보신문 차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은 신성민 현대불교 차장과 엄태구 불교신문 기자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직회원 47명 중 위임을 포함해 28명이 참석했다.

김현태 제19대 회장은 2004년 4월 법보신문사에 입사해 현재 편집국 차장으로 재직 중이며 불기협 홍보부장, 총무부장,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김현태 차기회장은 “불기협 설립의 취지와 같이 임기 중 회원사 및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의 화합과 불기협이 활성화를 위해 협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 17·18대 회장으로 불기협을 이끌어온 이강식 금강신문 차장은 총회에서 “13개 회원사와 회원들의 동참으로 회장 소임을 원만히 회향하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열린선원 윤희금지 표지판 걸어



서울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12월 14일 예수님오신날 축하법회에서 ‘윤희금지’ (no samsara) 표지판을 걸었다.

이 작품은 김영수 조각가가 만든 것이다. 열린선원 법현 스님은 “윤희를 하지 않도록 불심을 깊이하는 뜻에서 김영수 조각가에게 부탁해 이날 현액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액식에는 갈릴리교회 인명진 목사와 불교계 스님, 김민택 문명녀 정연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열린선원은 역촌중앙시장 재건축에 대비해 지난 9월부터 ‘새도량 마련을 위한 땅 한뼘 시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수료식



동국대(총장 보광)는 12월 1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대각전에서 불교대학원 특별과정인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 2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22기 수료생 33명 및 재학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료식에 이어,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 22기 원우일동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2,500만 원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02)2260-3027 노덕현 기자

공불련, 연말 복지관 자비나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2월 12일 경기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13차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공불련 회원 및 가족 일동 약 40여 명은 식판설거지 및 청소, 점심 급식 준비, 배식 등 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불련은 행정자치부 및 기관별자회 등에서 마련한 보시금을 복지관 측에 전달했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각자 연말을 바쁘게 보내면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중
-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